

# 더램프의 희망등불

2021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후원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램프 역시 작년과 올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더 전문화되고 성숙한 더램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램프는  
오염된 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 씻는 시설과 긴급식량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제는 지속가능한 빈곤국가 농촌살리기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빈곤국가의 농촌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가축분뇨와 생활오수가 방치되어 다시 지하수가 오염되어 정수 시설이 과부하가 걸려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만으로 농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제 농촌의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인식개선의 필요)
-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쓰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운동)
-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가축의 분뇨와 버려지는 농업부산물, 음식쓰레기, 인분까지 퇴비로 만들어 오염원을 친환경 자원으로 만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이로 인해 농약과 비료 구입비 절약 (소득증대)
- 땅이 되살아나서 생산성 증대 (소득증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 환경개선으로 지하수는 보호됩니다. (자원보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빈곤국가 농촌마을 살**

리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더램프가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케냐와 스리랑카 두 나라를 선정하였습니다.

## 케냐 바링고 카운티



카밀라(36세)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뭄이 6개월째 물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늘 물을 길러오는 이 곳은 한 바가지 퍼올리면 바가지의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반을 찾아온 이곳 수통 두 개를 짊어지고 집에 가는 길은 벌써 등짝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2019년 10월 케냐 바링고에서 만난 농민여성

### 바링고 워터팬(저수지)사업

본 사업은 한국 로타리의 후원으로 국제로타리사업으로 확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더램프는 3년 전 바링고 카운티의 요청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현지 여성과 아이들은 식수를 구하려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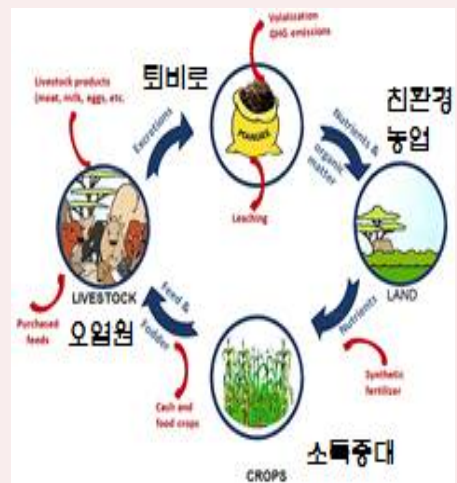


여성들은 경제활동 시간이 줄고, 자녀들은 교육이 소홀해졌습니다. 바링고는 케냐 반건조기후에 속한 지역으로 오염된 물을마심으로 수인성질병이 만연하였습니다. 인구보다 많은 가축들 역시 마실물이 부족하여 건기를 견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기의 물을 저장하여 사용할수 있는 워터팬(저수지)를 만들어 가축의 마실물을 해결하고 한편으로 정수 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는 약 1,400명 주민과 8,000 마리의 소, 양, 염소가 될 것입니다. 예산은 약 90,000불이 소요됩니다.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어 설사와 같은 수인성질병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바링고 농촌마을 살리기 사업

바링고 마을살리기 사업은 현지 NGO인 MwAfrika와 협력을 통해 기존 여성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 생산을 위한 교육 및 기자재 지원, 퇴비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퇴비사업은 여성들이 가족의 도움을 힘입어 가정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옥수수 대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에 활용할 것입니다. 기존 농촌 여성조직 가운데 참여가능한 250개 가정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식수부담



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식수관리위원회의 자립운영을 도와줄 것입니다.



## 스리랑카

### 지부 조직 개편

지난 6년간 더램프 랑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서진태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 지부장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더램프는 스리랑카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식수 사업을 한 모든 시설들이 자립운영이 되어 매년 약 35,000 명이 식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램프 랑카 지부 사무실은 콜롬보 근처 와딸라로 옮겨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함께 하게 된 직원은 Mr. Susantha입니다. 강기종 더램프랑카 이사님께서 지부장 운영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 플라이티브 농촌 마을살리기 사업



물라이티브는 스리랑카 북부 건조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더램프는 2017-2019년 3년 동안 식수개발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Maritimepattu면에 두 개의 식수시설을 설치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살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램프는 이미 식수개발사업을 통해서 현지 협력 네트워크 갖추었습니다. 식수시설 직원 Susantha는 현지 주민 청년으로서 저희와 일한지 벌써 4년째입니다.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퇴비제작사업을 위한 마을주민 선정과 적절한 농작물을 선정하여, 2022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추진중입니다. 특히 물라이티브는 스리랑카 두 번째 땅콩생산지로서 퇴비를 통한 농업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CMS후원신청서입니다.  
QR코드를 찍어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더램프  
358801-04-143445



대표 이영철 고문 이시영  
이사 김달호, 김성민, 조영훈, 김철민, 이철우, 이홍규, 최도식, 구자범, 유명호,  
성낙송  
함께하는 단체 대전제일교회, 신철원중앙교회, 한울교회, 안동교회, 동행하는교회,  
고능교회, 뉴라이프교회, (주)유니락, (주)엠에스전기, 주작나무한의원, 위코스메틱스,  
JBN보험중개